

케이트 쇼팽의 「폭풍」에 나타난 다층적 크로노토프의 의미: 『눈뜸』과의 비교연구*

이 준 영

단독/ 영남대학교 교수

[국문초록]

케이트 쇼팽의 작품에서 폭풍과 폭풍의 탄생지인 바다는 창조와 파괴라는 양가적인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어 『눈뜸』에서 바다는 주인공인 에드나에게 관능적 로맨스의 해방을 꿈꾸게 하는 정신적이고 존재적인 폭풍을 일으키지만, 결국에는 그녀가 바다에서 죽음과 맞닥뜨리게 되는 운명을 초래한다. 단편 「폭풍」에서도 역시 폭풍은 과거의 로맨스를 현재에 부활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여주인공인 캘릭스타에게 훨씬 더 급진적이고 강렬하게 결혼이라는 사회적 관습을 거스르는 낭만적인 관능을 깨우쳐 준다. 그렇지만 『눈뜸』과는 달리, 이 단편에서 폭풍은 캘릭스타를 과멸로 이끌지 않고, 오히려 그녀가 자신의 몸과 영혼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간직하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충실하게 결혼과 가정으로 돌아가게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폭풍」에서의 폭풍의 양상이 『눈뜸』과 다른 원인을, 이 단편에 잠재한 다층적인 시간과 공간에 있다고 보고, 바흐친의 크로노토프 담론에 비추어 이 다층적인 시공간에 대해 분석한다. 「폭풍」에는 길, 로맨스, 그리고 영원한 삶에 관여하는 세 가지의 크로노토프를 바탕으로, 현재와 과거 그리고 영원이라는 각기 다른 시간과 공간의 층들이 서로 조화

* 이 연구는 2018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롭게 생산적으로 공존하고 있다. 이런 다층적 시공간은 결국에는 켈릭스타의 현실 세계를 긍정적으로 확대하여, 그녀가 관능과 낭만의 가능성으로 가득한 삶을 보다 충실하게 살아가게 만든다.

주제어: 시공간, 크로노토프, 로맨스, 케이트 쇼팽, 바흐친

I. 들어가며

남북전쟁 이후, 여러 지방의 지리적 배경과 인물 그리고 방언을 포괄하는 “풍요로운 다양함”으로 19세기 후반 미국 문학의 외연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야심 차게 추진된 일종의 출판기획인 “지역색”(Local Color) 운동의 대표적인 작가인 케이트 쇼팽(Kate Chopin)은, 비록 미국 중서부의 세인트루이스(St. Louis) 출신이었지만, 잘 알려져 있듯이 남부 루이지애나(Louisiana)주의 뉴올리언스(New Orleans) 지역을 배경으로 창작활동을 했다(Taylor 147). 그런데 이 뉴올리언스 지역은 멕시코만 연안(Gulf Coast)과 인접해 있어서 바다에서 시작된 열대성 폭풍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으로 악명이 높다. 대표적으로 2005년 8월에 “카트리나”(Katrina)라고 명명된 거대한 폭풍이 뉴올리언스를 덮쳐 인명과 재산에 극심한 피해를 줬을 뿐만 아니라, 자연의 힘 앞에서 초라해진 인간과 현대 과학 문명의 나약함에 대해 새삼스럽게 깨닫게 했다. 더욱이 이 폭풍이라는 자연현상은 시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미국 정부의 통치체제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인종과 계급차별이라는 미국 사회의 치부를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바버라 유엘(Barbara C. Ewell)과 파멜라 멘케(Pamela G. Menke)는 쇼팽에 관한 글에서, 이 카트리나는 루이지애나 해안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인적 물적 피해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삶을 이해하는 방식을 의식하게 만들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까지 바뀌게 만드는 경험이었다고 토론했다(2-3).

한 마디로 이 끔찍한 폭풍을 경험한 사람들은 경험하기 이전의 관점으로는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볼 수 없었고, 자신들의 예전의 자아들은 폭풍이 가져다준, 새롭지만 어두운 현실에 맞설 수 없어, 자아를 재형성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시 수립해야만 한다고 다소 과장 섞인 자조를 하기도 한다. 유엘과 멘케가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폭풍에 대해 언급한 이유는, 쇼팽 또한 이 카트리나에 비견될 만한 역사적인 열대성 폭풍인 “시월 대폭풍”(Great October Storm)이 1893년도에 뉴올리언스를 파괴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목격했고, 이런 격변을 가져오는 폭풍우에 대한 쇼팽의 두려움이 그녀가 대표작인 『눈뜸』(*The Awakening*)을 집필하는 데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주장하기 위해서이다.

사실 쇼팽 자신은 시월 대폭풍이 『눈뜸』의 로맨스가 펼쳐지는 주요 공간적 배경인 그랜드 아일랜드(Grande Isle)과 치니에레 카미나다(Chênère Caminada)를 파괴했던 1893년도에는 고향인 세인트루이스에 다시 정착했기 때문에 이 폭풍을 몸소 체험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여름을 보냈던 호텔이나 교회 등의 추억의 장소들이 폭풍으로 인해 무참히 파괴되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Ewell and Menke 4). 이런 경험으로 인해 쇼팽은 뉴올리언스 연안에 펼쳐진 바다의 양면적인 모습, 다시 말해 관습과 전통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대안적 로맨스의 계기를 만들어 주거나 안락한 피난처를 제공하는 반면, 폭풍을 생성하여 무자비한 파괴와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일 수도 있는 바다의 이율배반적 면모를 경험하였고, 이는 그녀의 여러 작품에 영향을 주었다고 유엘과 멘케는 주장한다. 1899년도에 출판된 『눈뜸』의 주요 사건들은 1893년 시월의 폭풍이 엄습하기 전 뉴올리언스 해안의 휴양지인 그랜드 아일랜드와 어촌인 치니에레 카미나다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이 대표작은 소중한 추억의 장소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쇼팽이 느낀 상실감의 유산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추억은 바닷가에서 만들어졌지만, 바로 바다 옆이라는 이유로 그 추억의 파괴 또한 바다에서 발생한 폭풍으로 인해 초래된 것이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아만다 카스트로(Amanda Castro) 또한 「폭풍 경고: 케이트 쇼팽의 『눈뜸』에서 영원히 반복되는 묵시록」(“Storm Warnings: The Eternally Recurring Apocalypse in

Kate Chopin's *The Awakening*”)이라는 글에서, 뉴올리언스에 불어 닥친 열 번이 넘는 폭풍을 경험한 쇼팽에게, 바다의 폭풍은 그랜드 아이일에 펼쳐진 해안가 유원지의 유포 피아적인 분위기를 파괴하는 묵시록적인 존재이며, 이 바다에서 비롯된 묵시록적인 비전이 끝내는 『눈뜸』의 주인공인 에드나 폰틸리에(Edna Pontellier)가 바다에 뛰어 들며 삶을 마감하는 계기가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런 바다와 폭풍에 연관된 쇼팽의 주요 작품 중에는 『눈뜸』 외에도, 비록 작가 생전에는 출판되지는 못했으나, 1969년에 『쇼팽전집』(*The Complete Works of Kate Chopin*)에 수록된 이후로, 현대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적지 않는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폭풍」(“The Storm”)이라는 단편이 있다. 쇼팽이 1898년도에 집필한 이 단편에서도 역시 멕시코만에서 시작된 폭풍이 등장하여 여주인공인 캘릭스타(Calixta)에게 중심사건이 발생하는 시간과 공간을 열어주는 촉매가 된다. 그런데 이 단편에 등장하는 폭풍은 쇼팽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뉴올리언스의 실제 폭풍과 『눈뜸』에 등장하는 바다와 이와 연관된 에드나의 정신적이고 존재적인 폭풍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 다시 말해, 「폭풍」에 등장하는 폭풍은 기존의 폭풍들, 즉 물리적인 1893년도의 시월 대폭풍이나 에드나의 존재적 폭풍이 가지는 생성과 파괴라는 양가성을 넘어서, 보다 건설적으로 자아와 현실의 외연을 확대하며, 긍정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세상을 다시 보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논할 수 있다. 이렇게 「폭풍」에 등장하는 폭풍이 『눈뜸』을 비롯한 쇼팽 다른 작품들에 나타나는 것들과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는 원인 중의 하나는, 다름 아닌 시간과 공간에 대한 다층적인 접근방식과 재현의 차이 때문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 쇼팽의 대표작인 『눈뜸』에서 바다와 폭풍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에 대해 「폭풍」과 비교하며 간략하게 논한 후에, 본 논문의 초점인 단편 「폭풍」을 바흐친(M. M. Bakhtin)의 문학 서사에 관한 시간과 공간의 담론을 바탕으로 분석하여, 이 단편이 암시하는 파격적이고 담대한 주제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다.

지금껏 「폭풍」에 대한 논의는, 그 전작으로 잘 알려진 「캐디언 무도회에서」(“At the Cadien Ball”)와 더불어, 주로 기존 사회의 도덕성과 대조되는 욕망과 열정의

대담한 분출을 통한 여성해방이라는 관점으로 논의되어왔다. 최근에는 여주인공인 캘릭스타에게 스페인 혈통의 피가 섞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인종차별과 민족적인 갈등이라는 주제로 이 작품을 논하고 있다. 예들 들면 다그마 페그스(Dagmar Pegues)는 전형적인 몰라토(Mulatto)에 대한 뉴올리언스 백인 사회의 차별로 인한 비극이라는 관점에서 이 단편을 분석하고 있고, 자넷 홀트만(Janet Holtman)은 매력적인 귀족 남성인 알쎈(Alcée)를 두고 벌어지는 캘릭스타와 클라리세(Clarisse)와의 갈등을 혼혈여인이 순수백인 여인을 상대로 벌이는 계급투쟁과 연적에 대한 복수라는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과 공간의 관점에서 이 단편을 논한 비평은 그리 많지는 않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폭풍』이라는 그리 길지 않은 문학 텍스트 안에서 서로 만나며 충돌하고 생산적인 긴장을 발산하는 여러 차원의 시공간들을 이 단편이 암시하는 주제적인 파격과 연결하는 논의는 나름으로 가치 있는 비평이라고 할 수 있다.

II. 『폭풍』과 『눈뜸』에서 폭풍의 상징적 양상 비교

평화롭게 펼쳐진 바다가 드러내는 창조와 파괴의 양가성은 『눈뜸』의 주인공인 에드나 폰틸리에가 바다와 맺고 있는 관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한 예로 에드나가 로버트 레브룬(Robert Lebrun)을 따라서 해변을 산책할 때, 그녀는 답답한 결혼생활로 인해 한동안 여름날의 안개처럼 그녀의 영혼을 짓눌렀던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억압”과 “모호한 분노”를 잠시 잊어버리고 바다의 관능적인 신비에 빠져든다(Awakening 8). 에드나에게 “바다의 목소리”(the voice of the sea)는 “유혹적”이며, 그녀의 영혼을 “고독의 심연”과 “내적인 명상의 미로”로 초대하는 듯했다(Awakening 15). 그녀의 영혼에 속삭이는 “바다의 손길”은 관능적으로 그녀의 몸을 부드럽고 친밀하게 감싸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특히 소심해서 수영을 못 배운 에드나가 로버트의 도움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바다에서 처음으로 성공적으로 수영을 할 때, 그녀는 마치 아이가 처음으로 걸음마를 떴을 때처럼 그 어떤 힘이 온몸과 영혼을 통해 전율하는 것을 느

끼며 환희에 젖는다(*Awakening* 28). 이런 에드나의 모습을 보고 로버트는 매해 팔월이면 “멕시코만의 정령”(the spirit of the Gulf)이 바다에서 출몰하여 마음에 드는 여자를 찾아 해안을 떠돌지만 실패해서 다시 바다로 돌아가지만, 이번에는 그녀에게 반해서 “준 천상계의 영역”(realms of the semi-celestials)으로 그녀를 이끌고 있다며 장난스럽게 말한다(*Awakening* 30). 그러면서 그 정령은 절대로 그녀를 그의 마법으로부터 놓아주지 않을 것이며, “아마도 그녀는 자기의 신성한 그림자 곁에서 불품없고 천박한 인간과 같이 걷는 고통을 다시는 감내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자조적으로 말한다(30).

이처럼 『눈뜸』에서 바다는 에드나의 몸과 영혼을 뒤흔들어 결국에는 자신과 세상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만드는 또 하나의 강력한 폭풍을 불러일으킨다. 비록 1893년에 뉴올리언스 해안을 파괴한 시월 대폭풍처럼 실제로 뉴올리언스 해변과 여촌 마을을 파괴하지는 않았지만, “바다의 목소리”가 그녀로부터 존재적인 폭풍을 불러일으켜서 기존에 그녀가 머물고 있었던 세계로 더는 돌아갈 수 없게 만들었다. 다시 말해서 그 존재적 폭풍은 그녀의 안락한 가정을 비롯한 전통적인 뉴올리언스의 귀족사회를 낯선 곳으로 변화시켰고, 기존의 삶을 “기괴한 복마전” 같이 이상한 것이 보이게 만들었으며, 심지어 사람들을 “눈먼 채 필연적인 멸종으로 향하며 몸부림치는 벌레들” 같이 구역질나는 존재로 탈바꿈시켰다(*Awakening* 58). 1893년도 실제로 일어난 대폭풍은 쇼팽에게는 소중한 추억의 장소를 물리적으로 파괴했지만, 에드나의 존재적 폭풍은 폭풍이 오기 전 그녀가 몸담고 있었던 세상을 파괴했기 때문에,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새로운 길로 그녀가 접어들게 했다.

에드나에게 자신과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깨우침을 준 폭풍은 결국 그녀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독을 가지고 있었다. 바다의 정령이 부린 마법에서 헤어날 수 없는 것처럼, 에드나는 “미혹의 주문”(spell of her infatuation)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지난 여름의 로맨스를 그리워하지만, 정작 로맨스의 대상인 로버트는 그녀를 감당하지 못하고 떠난다(*Awakening* 54). 그렇다고 다시 그전의 사회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에드나에게는 소설의 결말이 말해주듯이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길뿐이다. 바다와 그

폭풍은 그녀에게는 축복이자 저주인 것이다. 이런 바다의 양가적 특성은 에드나가 처음으로 수영을 배울 때 홀연히 죽음에 관한 생각이 그녀를 엄습할 때 이미 예견된 것이다. 그녀가 관능적인 바다의 파도를 타고 흥분한 채 바다로 헤엄쳐 나아간 후, 그녀가 떠난 해변과 사람들을 뒤돌아볼 때 갑자기 “죽음에 대한 홀연한 비전”이 스쳐 지나간다(Awakening 29). 결국에는 에드나는 존재적 눈뜸이라는 폭풍 이후에 다시 바닷가 그랜드 아일랜드를 방문하지만 1893년 폭풍이 그곳을 파괴한 것처럼 그곳은 이제는 예전 여름날의 추억의 장소가 아니다. 더는 그녀를 받아들 사회나 그녀를 이해해줄 연인을 찾지 못한 채, 그녀는 다시 관능적인 바다의 품으로 돌아간다. 예전에 느꼈던 죽음의 공포에 순간 휩싸이지만, 그녀의 첫 번째 집인 캔터키 고향에서의 자유로웠던 시절을 추억하며 바다에 잠긴다. 결국, 깨어남의 존재적 폭풍은 그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주지만, 이내 그녀에게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는 황망함을 주는 존재이기에, 파괴적인 면에서는 멕시코만에서 발생한 1893년도 시월 대폭풍과 그리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에드나의 죽음은 어쩌면 전통적 사회에 대한 반항의 대가로 볼 수 있다. 바다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 바다에 의해 파멸되는 여주인공은 통속적인 권선징악의 종말과도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눈뜸』을 중심으로 쇼팽의 바다와 폭풍에 대한 양가적인 관점을 논했다. 그렇지만 비록 짧은 단편이지만, 이 쇼팽의 대표 소설과 거의 유사한 주제를 뉴올리언스의 폭풍과 함께 다룬 『폭풍』에서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폭풍이 등장한다. 이 단편에서 출현하는 폭풍은 1893년도 시월 대폭풍처럼 쇼팽의 개인사에 있어서 소중한 장소들인 뉴올리언스 해변의 그랜드 아일랜드와 치니에레 카미나다를 무참히 파괴하여, 이곳들을 현실이 아닌 기억과 회상으로만 그녀가 갈 수 있는 추억의 공간으로 변모시킨 폭풍도 아니고, 에드나를 관능의 목소리로 뒤흔들어 몸과 영혼을 새롭게 일깨우지만 결국에는 파멸로 이끄는 정신적이고 존재적인 폭풍도 아니다. 또는 아만다 카스트로가 주장하듯이 뉴올리언스 해변 휴양지들이 꿈꾸는 유토피아적 비전을 파괴하는 종말론적인 폭풍도 아니다. 독자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단편 중의 하나인 『폭풍』에 등장하는 멕시코만 바다의 정령이라고 할 수 있는 폭풍은, 어쩌면 에드나의 분신이라고

도 칭할 수 있는 여주인공인 캘릭스타에게 잠재해 있는 열정과 욕망의 씨앗을 일깨워 주어, 자기 자신과 세상을 새롭게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된다는 면에서 에드나의 존재적 폭풍과 유사하다.

하지만 이 「폭풍」이라는 단편에 등장하는 폭풍은 여주인공에게 기존 자신이 몸담고 있던 가정과 세상과의 결별을 요구하는 사건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폭풍으로 인한 자아의 분열과 내적 갈등이 그녀를 괴롭히지도 않는다. 오히려 폭풍으로 인해 촉발된 우연의 현재와 필연의 과거를 동반한 로맨스를 계기로 깨달은 숨겨진 자아와 세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기존의 자아와 세상과 사뭇 조화를 이루면서 삶과 세상의 폭을 넓혀서 여주인공을 비롯한 등장인물들이 더욱더 행복하면서도 현실에 충실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폭풍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눈뜸』에 등장하는 바다와 그로 인해 에드나가 고통스럽게 겪는 존재적 깨어남의 폭풍이 가지는 양가성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이 단편에 등장하는 폭풍은 촉발하고 있다. 말하자면 「폭풍」에 등장하는 폭풍은 기존에 쇼팽과 관련된 현상들, 즉 물리적인 1893년도의 시월 대폭풍이든 정신적인 에드나의 존재적인 폭풍이든 기존의 자연현상이 가지는 창조와 파괴라는 양면성을 넘어서, 보다 건설적으로 자아와 세상의 외연을 확대하며, 긍정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세상을 더욱 깊이 이해할 가능성을 열어주는 폭풍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앞서 서론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필자의 견해로는 단편 「폭풍」에 등장하는 폭풍이 『눈뜸』을 비롯한 쇼팽의 다른 작품들에 나타나는 폭풍과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접근방식과 재현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시간과 관련된 다층적 관계 설정은 이 짧은 작품의 중심 서사인 캘릭스타와 그녀의 옛 연인이었던 알제와의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로맨스에 안정감과 색다른 현실성을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눈뜸』의 중심 서사인 바닷가 휴양지인 그랜드 아일랜드에서 벌어지는 에드나와 로버트의 몽상적이고 잔잔하게 진행되지만 결국에는 위험하고 파괴적인 로맨스와는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알렌 스타인(Allen Stein)이 지적했듯이 「폭풍」은 짧은 5장으로 이루어진 단편이기 때문에 폭풍에 의한 우연한 로맨스라는 줄거리 외에는 모든 게 파편적이고 피상적이며 모호하다

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문학에서는 때로는 직접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생각 속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듯이, 이 작품이 다루는 시간에 대한 접근방식을 분석하면 이 작품이 결혼과 성에 관련하여 말하려는 대담한 주제를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필자는 생각한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문학에서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주는 바흐친의 크로노토프(chronotope)에 대한 담론을 바탕으로 「폭풍」의 시간에 대한 재현 양상을 논하겠다.

III. 「폭풍」에 등장하는 세 가지 차원의 크로노토프 분석

「폭풍」은 단편이라는 지면의 한계 속에서도 시간과 공간이 상당히 다층적으로 재현된다.¹⁾ 갑작스럽게 폭풍이 휘몰아치는 바로 이 순간에 이 작품의 중심사건인 캘릭스타와 알씨의 격정적 로맨스가 펼쳐지지만, 이 사건의 씨앗은 전작인 「캐디언 무도회에서」에서도 드러나듯이 과거에 이미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최소한 이 작품에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며 역동적인 대화와 긴장을 이루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자세히 보면, 과거와 현재가 휘몰아치는 와중에 과거와 현재라는 일반적인 시간의 순서를 초월하는 또 다른 영역의 시간이 순간적인 현재보다 훨씬 더 현실적으로 이 작품의 중심에서 그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폭풍」에서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이를 초월하는 새로운 영역의 시간이 서로 폭풍처럼 충돌하고 휘몰아치며 역동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문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서사의 단위인 시간과 공간의 결합을 크로노토프라는 관점으로 통찰력 있게 분석한 미하일 바흐친의 이론으로 이 단편의 다층적 시간과 공간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며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는가를 논의하는 것도 나름으로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많이 논의되었듯이 “시공간”을 가리키는 용어인 크로노토프는, 바흐친에 의하면, “문학에서 예술적으로 표현된 시간과 공간 관계의 본질적인 상호연관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문학에서 하나의 “형식적인 구성 범주”(formally constitutive

category)로 볼 수 있다(84). 사실 크로노토프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나 수학 등에서 많이 논의되는 개념이지만 바흐친은 이 개념을 문학에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문학의 예술적인 크로노토프에서는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지표들이 하나의 주의 깊게 숙고한 구체적인 전체를 이루고 있다. 시간은 말하자면 두꺼워지고 살이 붙게 되어서 예술적으로 보이게 된다. 마찬가지로 공간은 시간과 플롯 그리고 역사의 운동으로 채워지거나 반응한다. 이런 지표들의 융합과 축들의 교차가 예술적인 크로노토프를 특징짓는다.

In the literary artistic chronotope, spatial and temporal indicators are fused into one carefully thought-out, concrete whole. Time, as it were, thickens, takes on flesh, becomes artistically visible; likewise, space becomes charged and responsive to the movements of time, plot and history. This intersection of axes and fusion of indicators characterizes the artistic chronotope. (84)

위의 인용이 암시하듯이, 바흐친의 크로노토프 개념은 기본적으로 애매하고 너무 광범위한 면이 있다.²⁾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시간이 두꺼워지고 살이 붙게” 된다는 표현이 말해주듯이, 크로노토프는 시간을 문학 텍스트에서 보일 수 있게 만드는 핵심적인 단위라는 점이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보인다는 개념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크로노토프는 시간의 성격에 맞게 공간을 채우거나 형상화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바흐친이 문학의 크로노토프에서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논하듯이, 공간보다는 시간이 크로노토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논할 수 있다(85).

크로노토프 개념을 다층적인 시간을 함유한 「폭풍」에 적용하면 이 작품의 서사 구조를 시간을 중심으로 잘 파악할 수 있다. 일단 이 작품은 폭풍이 곧 다가오는 순간적으로 흘러가는 현재의 시간과 캘릭스타와 알체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사건들을 담고 있던 과거가 폭풍으로 인해 서로 충돌하며 플롯을 만들고 있다. 특히 현재라는 시간에

묻혀서 눈에 띄지 않았던 과거의 시간이 폭풍으로 인해 바흐친이 말한 것처럼 “살이 붙게 되어서 예술적”인 로맨스의 형태로 작품의 서사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의 시간 또한 폭풍이 몰아치면서 캘릭스타의 남편인 보비뇨(Bobinôt)과 아들인 비비(Bibi)가 프리드하이머(Friedheimer)의 가게에서 새우 통조림을 구매한 뒤 집으로 돌아가는 일상적인 시간이, 폭풍이라는 난관을 뚫고 집으로 무사히 귀환해야만 하는 일종의 길 위에서 펼쳐지는 모험담의 시간으로 탈바꿈해서, 시간의 결이 두꺼워지고 예술적으로 긴장감 있게 보이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폭풍을 계기로 활짝 핀 로맨스의 시간에서 과거와 현재를 초월하는 영원이라는 다른 차원의 시간이 예술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볼 때 최소한 세 가지 차원의 시간, 즉 현재와 과거 그리고 영원이라는 각각의 시간의 층들이 이 「폭풍」이라는 단편에 공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폭풍」에 존재하는 이 세 가지 차원의 시간의 층들은 공간과 어우러져 각각 세 가지 종류의 크로노토프를 형성한다. 바흐친에 의하면 문학사적으로 크로노토프의 주요 역할은 내러티브 픽션의 “장르”를 규정하거나 구분 짓는 일이다(85). 따라서 폭풍치는 뉴올리언스 평원의 공간은 각각의 시간의 층들에 의해 채워지고 반응하며 이 짧은 단편소설이라는 지면의 한계에서도 세 종류의 장르적 크로노토프를 만든다. 첫 번째는 일상적이며 흘러가는 현재의 시간으로 채워지는 일종의 “길의 크로노토프”(the chronotope of the road)라고 할 수 있는 크로노토프가 「폭풍」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전체적인 서사의 윤곽을 잡아준다. 이 크로노토프에서는 “길 위에서”라는 공간에서 이야기가 시작하고 종결되며, 시간은 길 위라는 공간에서 흘러간다(Bakhtin 233-44). 따라서 부자지간인 보비뇨와 비비가 상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보내는 시간이 이 단편 서사의 피상적인 시간과 공간이다. 여기에서 시간은 리얼리즘의 시간과 마찬가지로 흐르는 시간이다. 바흐친에 의하면 길의 크로노토프는 항상 “익숙한 영역”을 지나가지 “이국적인 낯선 세계”를 통과하지는 않는다(245).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아들은 항상 그들이 왕래했던 상점과 집 사이로 뻗은 길을 따라간다. 이런 의미에서 「폭풍」의 기본적인 서사의 시간과 공간은 길의 크로노토프에 따라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길의 크로노토프 안에서 보비넷과 비비가 집으로 돌아가려는 와중에 갑자기 폭풍이 짙은 구름과 바람을 동반하며 갑작스럽게 다가온다. 그렇지만 이들은 폭우와 진흙탕을 헤치며 집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이렇게 볼 때 길 위에서의 크로노토프가 폭풍을 만나면서 ‘모험의 크로노토프’로 변화하는 듯이 보인다. 모험의 크로노토프에서 시간은 “모험의 시간”으로 채워지는데, 이 시간에서는 “갑작스럽게”라든가 “바로 그 순간에” 등의 일상을 벗어나는 뜻밖의 사건들을 묘사하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한다(Bakhtin 94-95). 이런 의미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위의 바로 그 순간에 갑작스럽게 폭풍을 만난 아버지와 아들에게는 일상적인 시간이 폭풍을 물리치면서 집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모험의 시간으로 잠시나마 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비비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대목이 말해주듯, 뉴올리언스의 여름에서 폭풍은 비교적 익숙한 현상이기에 현대적인 의미의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모험은 아니다(115). 오히려 그리스 시대의 모험담처럼,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근본적인 변화 없이,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 깨진 “균형”(equilibrium)을 끝내 다시 회복하면서 종결되는 길 위에서의 모험 크로노토프를 「폭풍」은 기본적인 서사의 시간과 공간으로 가지고 있다(Bakhtin 106). 따라서 이 길과 모험의 크로노토프에서 시간은 흐르는 시간이며, 공간은 폭풍이 갑작스럽게 몰아쳤다가 다시 물러나는 공간이다. 물론 폭풍이 오는 사이에 가장 중심적인 크로노토프인 캘릭스타와 알쎬의 로맨스가 있지만, 결국에는 다시 폭풍이 오기 이전의 평정과 균형을 되찾는 공간으로 단편 「폭풍」은 종결된다. 캘릭스타와 알쎬가 사회적 관습에 역행하는 로맨스에 갑자기 빠져들었음에도 『눈뚱』의 에드나와는 달리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이 단편의 전체적인 서사인 길 위의 모험이라는 크로노토프 자체가 장르적으로 균형을 회복하려는 성격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폭풍」에서 두 번째 차원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시간과 공간을 재현하는 크로노토프는 바로 캘릭스타와 알쎬가 연관되는 로맨스의 크로노토프이다. 이 로맨스 크로노토프에서 시간은, 길이나 모험의 크로노토프와는 달리, 흘러가기보다는 멈춰진 시간

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우연히든 필연이든 사랑에 빠진 남녀는 그들이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영원히 멈추길 바라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폭풍 치는 뉴올리언스의 평원이라는 개방된 공간과 달리, 이 멈춰진 시간을 담고 있는 로맨스의 공간은 사랑하는 연인들만의 공간이기 때문에 사회적 역사적 관계망에서 잠시나마 벗어난 폐쇄된 두 연인만의 공간이다. 「폭풍」에서는 이런 로맨스의 시간과 공간이 길과 모험의 크로노토프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흐르는 리얼리즘의 현재 시간과 뉴올리언스의 초원이라는 개방된 공간으로 구성된 크로노토프 중간 사이에서, 멈춰진 과거의 시간과 폐쇄된 공간으로 이루어진 로맨스의 크로노토프가 갑작스런 폭풍우로 인해 캘릭스타의 집안에서 펼쳐진다. 이때 폭풍의 역할은 바흐젠이 논한 “문턱의 크로노토프”(the chronotope of threshold)와 같은 역할을 한다(Bakhtin 248). 이 크로노토프의 성격은 조금 애매하지만, “우연한 만남이라는 동기”와 함께 일상의 시간과 공간에서 로맨스의 시간과 공간으로 문턱을 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 문턱의 크로노토프는 주로 계단이나 현관 또는 복도 등의 공간에서 펼쳐지는데, 「폭풍」에서도 역시 갤러리라고 불리는 캘릭스타 집의 처마 밑으로 알쎈이 폭풍을 피하면서 로맨스가 시작된다(115). 따라서 갤러리는 일종의 크로노토프 간의 변화를 상징하는 문턱의 역할을 한다. 폭풍으로 인해 우연히 마주치게 된 두 남녀는 거세어지는 폭풍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갤러리라는 문턱을 넘어 집으로 들어서면서 서로 간직하고 있었던 과거의 시간을 로맨스의 공간에서 부활시킨다.

캘릭스타와 알쎈의 못다 이룬 인연은 이 단편의 전작인 「캐디언 무도회에서」에서도 중심사건이다. 1892년도에 쓰인 이 전작에서는 무도회가 열리는 밤에 과거 일 년 전 뉴올리언스의 어썬션(Assumption)에서 있었던 만남을 주제로 캘릭스타와 알쎈은 정감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의 로맨스를 이를 뻗었다. 그러나 알쎈과 곧 결혼하게 될 클라리쎈이 갑자기 나타나서 무산된다. 도도했던 상류층 출신인 클라리쎈이 평소에 경멸했던 유흥의 장소인 캐디언 무도회까지 그를 되찾기 위해 밤새 달려오자 알쎈은 캘릭스타의 존재를 잊은 듯 자석에 끌려가듯이 가버린다. 이렇게 갑자기 홀로 있게 된 캘릭스타를 평소에 그녀를 흠모해오던 보비넛이 나타나서 그녀를 집까지 바

래다준다. 어슴푸레한 새벽하늘 아래 펼쳐진 초원을 가로지르며 보비נות은 캘릭스타에게 청혼을 수락받는다. 이렇게 해서 보비נות은 캘릭스타와 결혼하게 되고, 알제는 클라리제와 맺어진다. 사실 알제와 캘릭스타의 로맨스에 장애가 되는 점은 클라리제와 보비נות이라는 강력한 연적들의 존재뿐만 아니라, 캘릭스타가 쿠바와 스페인에게 혈통이 섞여 있는 혼혈이라는 점이다. 프랑스계 백인이 주류인 뉴올리언스 사회에서 “물라도”보다도 더 곱슬머리인 “작은 스페인 여우”(little Spanish vixen)로 알려진 캘릭스타는 소외된 계층이고 어썸션에서의 스캔들은 그녀의 평판을 더욱 떨어뜨린다(“At the ‘Cadian Ball” 10-11). 따라서 전형적인 상류층 출신인 알제가 캘릭스타와 결혼할 가능성은 당대의 사회적 관례에 비추어 상당히 희박하고, 그보다는 낮은 사회적 위치에 있는 보비נות이 그녀에게 좀 더 적당한 배우자이다.

「폭풍」에서 캘릭스타와 알제의 폭풍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만남은 로맨스 크로노토프의 전형적인 시간과 공간을 재현하고 있다. 「캐디언 무도회에서」에서도 역시 폭풍이 사이클론(cyclone)이란 이름으로 등장한다(“At the ‘Cadian Ball” 12). 이 폭풍은 알제가 일 년 내내 노새처럼 일하면서 가꾼 “9백 에이커”가 넘는 면적의 쌀농사를 망친다. 비록 재산이 많아서 그리 큰 타격을 아니었지만, 이로 인한 분노와 좌절감을 삭이기 위해 알제는 캐디언 초원에서 열리는 무도회에 가서 캘릭스타를 만난다.³⁾ 후속작인 「폭풍」에서도 폭풍은 캘릭스타와 알제가 다시 재회하는 기회를 만들어준다. 폭풍이 오자 알제는 비바람을 피해서 갤러리라고 불리는 처마 밑으로 가지만, 휘몰아치며 “퍼붓는”(driving sheets) 비바람을 피하기는 역부족이라서, 캘릭스타의 집 안으로 들어간다. 그들이 함께 실내에서 창밖을 바라볼 때 “퍼붓듯 비가 와서 멀리 떨어진 오두막들을 희미하게 만들고 저 너머 숲을 회색 안개가 뒤덮는다”(The rain was coming down in sheets obscuring the view of fa-off cabins and enveloping the distant wood in a gray mist) (116). 이처럼 집 안의 실내공간은 밖의 외부공간과 비와 안개로 단절되어 전형적인 로맨스의 공간처럼 폐쇄된 두 남녀만의 공간이 된다. 강렬한 폭풍의 기세에 남편과 아이를 걱정하며 우는 캘릭스타를 위로하기 위해 알제는 그녀를 껴안으며, 과거의 시간을 떠올린다.

“기억할 수 있어 어썸션에서, 칼릭스타?” 그는 욕망으로 갈라진 저음의 목소리

로 몰았다. 오 그래! 그녀는 기억한다. 왜냐하면, 어썸션에서 그는 자기의 감각이 무더질 때까지 그녀에게 키스했었다. 그리고 그녀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는 황급히 달아나곤 했다. 그 시절 그녀는 완전히 청순한 한 마리의 비둘기는 아니었지만, 그녀는 그런데도 여전히 범할 수 없었다. 정열적인 존재, 자신에게 아무런 방어수단이 없다는 점이 그녀를 지켜주었다. 왜냐하면, 그런 무방비함을 이용하여 그녀를 취하기에는 그의 명예심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그래 지금은 그녀의 입술은 쉽게 맛볼 수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둥글고 하얀 목과 그녀의 하얀 가슴도.

“Do you remember-in Assumption, Calixta?” he asked in a low voice broken by passion. Oh! she remembered; for in Assumption he had kissed her ... until his senses would nigh fail, and to save her he would resort to a desperate flight. If she was not an immaculate dove in those days, she was still inviolate; a passionate creature whose very defenselessness had made her defense, against which his honor forbade him to prevail. Now-well now-her lips seemed in a manner free to be tasted, as well as her round, white throat and her whiter breasts. (116)

이 장면에서 과거의 시간이 현재와 만나 되살아난다. 과거에 이루지 못한 로맨스라는 시간의 씨앗이 폭풍을 만나 다시 활짝 피어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단편에서 로맨스 크로노토프의 시간은 과거의 시간, 즉 현재와 만나서 부활한 과거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과거가 현재와 공존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그 시간은 폭풍 치는 현재 초원의 흐르는 시간과는 달리, 과거에 일어난 잊지 못할 로맨스의 씨앗 속에 멈춰진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크로노토프가 과거라는 시간의 씨앗 속에 담겨있는 시간을 “만질 수 있고 보일 수” 있도록 만들었고, 캘리스타와 알씨의 로맨스라는 서사의 중심사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살을 입히고”(takes on flesh) “피가 흐르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Bakhtin 250).

『폭풍』에 등장하는 로맨스 크로노토프의 시간이 기억을 통해 과거가 다시 살아나서 멈춰진 시간이라면, 이 로맨스를 실현하는 공간은 어떤 종류의 공간인가에 대한

암시는 바로 그다음 장면에 나와 있다.

그들은 굉음을 내며 쏟아지는 폭우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폭풍우의 포효소리는 그녀를 그의 팔에 안기면서 크게 웃게 했다. 그녀는 바로 그 흐릿하고 신비스러운 침실에서, 그녀가 누운 침상처럼 하얀 하나의 계시였다. 처음으로 타고난 권리는 누리는 중인 그녀의 단단하고 탄력 있는 육체는 하얀 크림색의 백합, 태양이 그 꽃의 숨결과 향기를 세상의 영원한 생명에게 부여하라고 초청한 그 하얀 백합과 같았다. 가식이나 속임수없는 그녀의 풍부한 열정은 마치 하얀 불꽃과 같았으며, 그 불꽃은 아직 한 번도 도달한 적이 없는 그의 관능적인 본성 깊숙이 침투하여 응답을 받아냈다.

They did not heed the crashing torrents, and the roar of the elements made her laugh as she lay in his arms. She was a revelation in that dim, mysterious chamber; as white as the couch she lay upon. Her firm, elastic flesh that was knowing for the first time its birthright, was like a creamy lily that the sun invites to contribute its breath and perfume to the undying life of the world. The generous abundance of her passion, without guile or trickery, was like white flame which penetrated and found response in depths of his own sensuous nature that had never yet been reached. (116)

이 장면에서 켈릭스타와 알씨는 밖에서 휘몰아치는 폭풍에는 더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로맨스가 절정을 향하는 이 침실이라는 공간은 외부와 단절된 “흐릿하고 신비스러운” 폐쇄된 공간이기 때문이다. “폭풍우의 포효소리”는 사실 집 밖의 들판에서 불어오는 폭풍 소리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단절된 공간에서 원초적인 존재적 요소들의 깨어나는 소리라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외부와 단절된 공간에서, 두 연인은 본질적인 “계시”를 깨닫고 생전 처음으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다. 여기서 그들은 “타고난 권리”라고 묘사되는 그들의 관능적인 열정을 크림색의 하얀 백합처럼 만개시킨다.

이처럼 켈릭스타와 알씨는 보비닛과 비비가 보내는 일상적인 시공간과는 차원이

다른 새롭고 낯선 세계에서 그들의 못 이룬 과거의 로맨스를 부활시킨다. 이런 면에서 『폭풍』에 등장하는 로맨스의 크로노토프는 바흐친이 논한 “그리스 로맨스”의 세계와 무척 유사한 면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맨스의 세계는 “낯선” 세계이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분명치 않고 미지의 이질적인 것들이다. 주인공들은 처음으로 이 세계에 들어왔다. 그들은 이 세계와 그 어떤 유기적인 유대나 관계도 없다 ... 따라서 이 세상에서 그들은 단지 무작위의 가능성만을 경험할 수 있다.

Therefore, the world of the Greek romance is an alien world: everything in it is indefinite, unknown, foreign. Its heroes are there for the first time; they have no organic ties or relationships with it ... in this world, therefore, they can experience only random contingency. (Bakhtin 101)

비록 과거에서 시작된 켈릭스타와 알찌의 로맨스가 폭풍으로 인해 우연히 “무작위의 가능성”처럼 현재의 시간에서 다시 시작됐지만, 이 과거의 시간과 폐쇄된 공간이 만든 로맨스 크로노토프의 세계는 그들이 들어가 본 적이 없는 “낯선” 차원의 영역이다. 따라서 여기서 켈릭스타와 알찌는 생전 “처음으로 타고난 권리를 알게”(knowing for the first time its birthright) 된다. 다시 말해 기존 일상적인 세계와는 차원이 다른 세계를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이고, 이 다른 낯선 세계에서 그들은 이제껏 몰랐던 새로운 자신들의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낯선 세계는 그동안 일상에 가려진, 그들이 미처 몰랐던 또 다른 현실 세계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이 로맨스 크로노토프의 세계에서 깨우친 자신들의 모습이 본질적인 존재의 양상이라고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는 듯하다. 왜냐하면, 이런 약간은 생경한 자신들의 눈뜬 자아에 대해 저항하지 않고, 편안하게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눈뜬』에 등장하는 에드나의 불안하고 나약한 존재적 폭풍과는 달리, 이 단편에서 폭풍이 일으킨 켈릭스타와 알찌의 로맨스 크로노토프는 기존 현실에 대항하는 것이 아닌, 현실의 폭을 확장하는 긍정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길 위의 모험담’과 ‘로맨스’라는 두 가지 차원의 시간과 공간의 크로노토프를 살펴보았다. 전자에서는 현재의 시간과 개방된 공간이, 후자에서는 과거의 시간과 폐쇄된 공간이 서로 결합하여 차원이 다른 두 가지 종류의 크로노토프를 「폭풍」에서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종류 외에 과거와 현재를 초월하는 세 번째 차원의 크로노토프가 이 단편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폭풍을 계기로 활짝 핀 로맨스의 시간에서 과거와 현재를 초월하는 ‘영원’이라는 차원이 다른 시간과 공간이 이 세 번째의 크로노토프에 의해 예술적으로 “만질 수 있고 보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영원을 상징하는 시간과 공간 이미지는 바로 앞서 인용한 켈릭스타와 알체의 로맨스가 절정을 이루는 장면에서 등장하는 “하얀 크림색의 백합”이라고 볼 수 있다.⁴⁾ 다시 말해 하얀 백합의 이미지가 영원을 재현하는 시간과 공간의 결합인 크로노토프를 상징하는 이미지라고 볼 수 있다. 이 하얀 크림색의 백합은 “태양이 그 꽃의 숨결과 향기를 세상의 영원한 생명에게 부여하라고 초청”했다는 묘사에 암시되어있듯이,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형성하는 크로노토프와 연결되는 이미지라고 설명해도 과장은 아닐 것이다.

더욱이 켈릭스타와 알체가 로맨스의 절정에서 느끼는 감정을 쇼팽은 “그들은 삶의 신비 바로 그 경계선에서 함께 기절한 것처럼 보였다”라고 표현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로맨스 크로노토프에는 또 다른 차원의 크로노토프, 즉 삶의 근본적 신비를 담고 있는 영원의 크로노토프로 연결 짓는 이미지가 있으며 그 이미지는 바로 “하얀 크림색의 백합”이라고 볼 수 있다(117). 이와 관련하여 바흐친은 크로노토프의 근본적인 역할은 “시간을 공간에서 물질화”하는 역할이라고 주장한다(250). 이 바흐친의 논점에서 보면, 하얀 크림색 백합은 바로 영원이라는 시간을 로맨스의 공간에서 물질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백합은 영원을 상징하는 일종의 시간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바흐친은 “모든 문학적 이미지는 크로노토프이다”라고 말한다. 말하자면, 모든 문학적 이미지는 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 이미지에 대한 시간과 공간을 통한 역동적인 재현과 반응 없이는 그 이미지의 목적을 구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그리스 문학에서 아름다움의 대명사로 알려진 “헬렌의 아

름다움은 호머에 의해 묘사되기보다는 트로이 원로들의 반응을 통해서 입증된다”라고 바흐친은 주장한다(251). 다시 말해, 헬렌의 아름다움에 대한 문학적인 재현은 “정적인 묘사”가 아닌, 헬렌의 미에 관한 반응들, 즉 욕망, 숭배, 질투 등이 촉발하는 여러 사건에 대한 역동적인 시공간의 재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캘릭스타와 알제의 역동적인 로맨스의 시간과 공간에서 피어난 이 하얀 크림색의 백합은 삶의 본질적 신비를 품고 있는 영원한 시간과 공간을 상징하는 일종의 크로노토프라고 정의할 수 있다.

IV. 다층적 현실의 의미

지금까지 바흐친의 담론을 바탕으로, 『폭풍』에 나타난 세 가지 차원의 시간과 공간을 재현하는 길 위의 크로노토프, 로맨스 크로노토프, 그리고 영원의 크로노토프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런데 이런 논의를 개진한 주요 목적은 서론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폭풍』에 등장하는 폭풍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함이다. 기본적으로 단편이라는 짧은 지면과 모호한 플롯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 단편에 나오는 폭풍은 쇼팽의 개인적 추억을 담고 있는 뉴올리언스 바닷가 휴양지를 황폐화한 1893년도 시월 대폭풍의 파괴적 성격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눈뜸』에 등장하는 에드나의 존재적 폭풍의 양가적 성격, 즉 자신과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깨우침의 폭풍이지만, 그 대가로 기존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심지어는 연인으로부터도 소외를 당하며 자신의 삶을 자살로 마감하게 만드는 그런 이중적인 폭풍과도 다른 양상을 단편 『폭풍』에서는 보여주고 있다. 이 단편에서는 현재의 우연과 과거의 필연이라는 폭풍에 의해 캘릭스타와 알제가 기존 사회의 전통적 관습에서 보면 상당히 부도덕한 로맨스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망설임이나 죄책감, 또는 권선징악의 우울한 그림자도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로맨스의 폭풍이 친 후 세상은, 폭풍이 남긴 반짝이는 빗방울로 인하여 “보석의 궁전”으로 변한다(117). 또한, 이 두 연인은 양심의 가책이나 후회

없이 서로 활짝 웃으며 헤어진다. 더욱이 켈릭스타와 알제는 다시 그들의 가정으로 아무 일 없었듯이 돌아가 더욱더 행복하게 지낼 것이라는 단언으로 작품은 끝을 맺는다: “그렇게 폭풍은 지나갔고, 모두가 행복했다”(118).

『눈뜸』과는 대조적으로 「폭풍」이 행복한 결말로 끝난 여러 이유 중의 하나는, 이 단편이 재현한 크로노토프 자체의 본질적 성격에 기인한다고 말할 수 있다. 크로노토프의 기본 단위인 시간과 공간은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가 논한 대로 현실을 인식하는 선험적인 기본 단위다. 바흐친도 또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거의 유사한 맥락으로 “가장 직접적인 현실”을 인식하는 기본적인 형식이라고 크로노토프를 설명한다(85). 그는 또한 크로노토프는 “구체적인 예술적 인식”의 과정에서 중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크로노토프는 현실 인식에 있어서 본질적인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현실이라고 칭하는 그 어떤 전체나 차원을 인식하는 행위는, 기실 한 차원의 크로노토프를 인식하는 행위와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역으로 생각해 보면 현실이라고 부르는 전체나 차원 또한 시간과 공간의 크로노토프가 없다면, 최소한 우리에게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폭풍」에 등장하는 세 가지 종류의 크로노토프, 즉 세 가지 차원의 시간과 공간 모두 각각의 현실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켈릭스타와 알제가 존재하는 현실은 폭풍이 오는 물리적으로 흐르는 현재라는 시간과 공간의 차원만이 아니다. 과거 어썸션과 캐디언 무도회에서 있었던 로맨스라는 시간의 씨앗 또한 또 하나 현실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과거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강렬한 현실인 것이다. 게다가 로맨스 안에서 하얀 백합의 모습으로 드러난 영원이라는 시간도 역시 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 로맨스는 순간에서 영원을 꿈꾸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현실은 현재의 시간만의 단선적인 현실이 아닌 과거와 영원이 함께하는 다층적인 현실이다. 켈릭스타와 알제도 본래 이런 다층적 현실에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굳이 삶에 있어서 한 가지 현실, 즉 현재의 사회와 가정이라는 현실에만 의존해서 살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근본적이며 존재적 의문을 이 짧지만 강력한 단편인 「폭풍」은 독자들에게 던져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폭풍」에서의 폭풍은 추억의 장소를 황

폐화하는 폭풍도 아니고, 깨우침과 소외와 죽음의 양가적 폭풍도 아닌, 단선적 현실을 다층적인 현실들로 확장하여 삶의 폭과 의미를 넓히는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폭풍이라고 논할 수 있다.

Notes

- 1) Kate Chopin. "The Storm," *Literature : An Introduction to Fiction, Poetry, and Drama*. Ed. X. J. Kennedy and Dana Gioia. New York: Longman, 2003. 114-18. 지금부터 이 작품에 대한 인용은 쪽수만 표기하겠습니다.
- 2) 바흐친의 크로노토프에 대한 흔한 비판 중의 하나는 바로 이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라딘(Ladin)은 바흐친은 크로노토프에 대한 “체계적인 정의”(systematic definition)를 준 적이 없다고 비판한다(213). 솔츠(Scholz) 또한 바흐친은 크로노토프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내려 하지 않고, 이 개념을 적용한 광범위한 용례들을 제시하면서 이 개념의 의미를 말하려 한다고 논한다(146).
- 3) 「캐디언 무도회에서」는 1892년도에 집필되었는데, 그 후 1893년도에 앞서 논한 10월 대폭풍이 들이닥치면서 쇼팽에게 남편과의 추억의 장소인 뉴올리언스 해변을 파괴했다. 이 10월의 폭풍은 에드나의 존재적 폭풍의 모티브가 되었다. 쇼팽 자신에게도 이 10월 폭풍은 그녀를 이전의 추억어린 세계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들었다. 따라서 1898년에 쇼팽이 「폭풍」을 집필할 때에는 아마도 폭풍에 대한 쇼팽의 양가적 인식이 확고해졌다고 말할 수 있다.
- 4) 크리스토퍼 베이커(Christopher Baker)에 의하면 캘릭스타라는 이름은 꽃받침을 뜻하는 “calyx”에서 유래한 이름이다(225). 쇼팽은 식물학을 포함한 생물학에 나름 조예가 깊었기에, 로맨스에 대한 주인공의 반응을 의도적으로 만개하는 꽃에 비유하기 위해 이렇게 작명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인 용 문 헌

- Baker, Christopher. "Chopin's 'The Storm'." *The Explicator* 52.4 (1994): 225-26.
- Bakhtin, M.M. *The Dialogic Imagination: Four Essays by M.M. Bakhtin*. Ed. M. Holquist. Trans. C. Emerson and M. Holquist. Austin: U of Texas P, 1981.
- Castro, Amanda Lee. "Storm Warnings: The Eternally Recurring Apocalypse in Kate Chopin's *The Awakening*." *The Southern Literary Journal* 47.1 (2014): 68-80.
- Chopin, Kate. "At the 'Cadian Ball,'" *A Pair of Silk Stockings and Other Stories*. New York: Dover, 1996. 10-18.
- _____. *The Awakening*. Ed. M. Culley. New York: Norton, 1976.
- _____. "The Strom," *Literature: An Introduction to Fiction, Poetry, and Drama* Ed. X.J. Kennedy and Dana Gioia. New York: Longman, 2003. 114-18.
- Ewell, Barbara, and Pamela Menke. "*The Awakening* and the Great October Storm of 1893." *The Southern Literary Journal* 42.2 (2010): 1-11.
- Holtman, Janet. "Falling Fictions: The Conflicting and Shifting Social Emphases of Kate Chopin's 'Local Color' Stories." *Southern Quarterly*. 42.2 (2004): 73-88.
- Ladin, Jay. "Fleshing Out the Chronotope." *Critical Essays on Mikhail Bakhtin*. Ed. Caryl Emerson. New York: Hall, 1999. 212-36.
- Pegues, Dagmar. "Fear and Desire: Regional Aesthetics and Colonial Desire in Kate Chopin's Portrayals of the Tragic Mulatta Stereotype." *The Southern Literary Journal*. 43.3 (2010): 1-22.

- Scholz, Bernhard F. "Bakhtin's Concept of 'Chronotope': The Kantian Connection." Vol. 2. *Mikhail Bakhtin*. Sage Masters of Modern Social Thought. Ed. Michael E. Gardiner. London: Sage, 2003. 145-72.
- Stein, Allen. "The Kaleidoscope of Truth: A New Look at Chopin's 'The Storm'." *American Literary Realism* 36 (2003): 51-64.
- Taylor, Helen. "The Perfume of the Past: Kate Chopin and Post-colonial New Orleans," *The Cambridge Companion to Kate Chopin*. Ed. Janet Beer. Cambridge: Cambridge UP. 2008. 147-60.

Abstract

The Meaning of Multilayered Chronotopes in Kate Chopin's "The Storm" as Compared with *The Awakening*.

Lee, Jun Young
Yeungnam University

In Kate Chopin's fictional work of New Orleans, the storms and the sea have the ambivalent aspects: the sensual creator of the romantic liberation and the merciless destroyer bringing deaths and disasters. In *The Awakening*, the sea awakens Edna Pontellier to an existential storm by which she opens her eyes to sensuous and romantic liberation, but she is doomed to a suicidal death in the sea by the aftermath of her personal storm. In one of Chopin's beloved short stories "The Storm," likewise, a storm awakens, in a more radical and explosive way, Calixta to the romantic sensuality that defies strongly the social norm and morality of marriage. However, the storm in that story never demands the downfall of Calixta such as isolation and death; rather, after passing of the storm that resurrected her romance of the past, Calixta continues to lead a life of faithful marriage, while recognizing the birthright possibility of her body and soul. In order to explore this difference of the storm in "The Storm," this essay attempts to analyze its multiple layers of time and space in terms of M. Bakhtin's discourse of chronotope. By the three kinds of chronotopes—the road of the present, the romance of the past, and the eternity—the multiple layers of time and space coexist harmoniously, productively as well, in "The Storm." This multilayered chronotopes of "The Storm" should enlarge the boundary of Calixta's real world, making her faithfully to lead a life of sensuous and romantic

possibility.

Key Words: time and space, chronotope, romance, Kate Chopin, Bakhtin.

논문접수일: 2020.01.15

심사완료일: 2020.02.12

게재확정일: 2020.02.27

이름: 이준영

소속: 영남대학교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이메일: wbenjamin@ynu.ac.kr

